



PROFESSORS' COUNCIL  
DANKOOK UNIVERSITY  
단국대학교 교수회

# 교수회브리프

제17권 4호 2022학년



교수회 브리프 17권 4호 2022학년. 발행일 2023년 2월 28일

발행인-조한승, 인쇄-이기광, 편집-이지수, 제호·로고 디자인-정훈동, 행정-엄희재·김현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상경관 532호 Tel 031-8005-2894 수고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 Contents

## 03 Welcome

### 퇴임인사

조한승 교수,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초대 교수회 회장

## 04 Welcome

### 따뜻한 소통과 참여를 꿈꾸며 - 제2기 교수회를 시작하며

김정윤 교수, 과학기술대학 물리학과  
제2기 교수회 회장

## 06 Strategy Session

### 2021-2022학년도 교수회-대학 간 정기 복지협의체 결산

이기광 교수, 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  
교수회 총괄사무국장

## 08 Community News

### 2022년 2학기 교수회 활동

- 2022학년도 제2차 통합운영 위원회
- 2022학년도 2학기 복지협의체 회의
- 생애 첫 보직자 명패 전달
- 교수회 연말 선물 증정
- 신입교원 설물 증정

- 교수회 야유회 및 신입교원 환영식
- 여교협-교수회 공동주최 특강

# 티임인사



조한승 교수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초대 교수회장

지난 2년 동안 초대 교수회장으로서 나름 열심히 봉사한다고 했으나 교수회 슬로건 ‘섬김’, ‘소통’, ‘참여’를 얼마나 잘 구현했는지를 교수님들께서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려 하니 아쉬움과 안도의 마음이 교차합니다.

무엇보다도 비대면의 아쉬움이 가장 크게 남습니다. 야유회와 같은 행사들을 치를 수 없었고, 교직원 식당이 폐쇄되어 교수님들께 커피 서비스를 오랫동안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교수협의회가 교수회로 명칭과 위상을 새로이 하는 과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교수회와 대학 본부와의 소통을 체계화할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사구조개편을 위한 공청회와 연구업적기준개정에 대한 의견수렴은 그러한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지난 설에 교수회 임원들과 함께 장충식 명예이사장님을 찾아뵈었을 때 명예이사장님께서 “내가 이제 대학 업무에서는 물러났지만, 간혹 타학교 이야기를 들을 일이 있는데, 대학 당국과 구성원 사이의 다툼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이 꽤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대학은 잘 소통하면서 문제를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등교육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는 우리대학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이 처한 현실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은 먼저 캠퍼스의 구성원들이 한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명예이사장님 말씀처럼 구성원들 사이에 원활하게 의견이 소통된다면 좋은 방안을 찾아 힘을 모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수회가 대학 발전을 위한 소통의 중심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많은 분의 도움을 받아 교수회를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교수회 임원 교수님들과 운영위원 교수님들의 헌신적인 노고가 교수회 발전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또한 장호성 이사장님과 김수복 총장님, 그리고 부총장님들과 실처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교수회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원노동조합과 각 부서의 직원 선생님들도 교수회의 여러 가지 요청에 흔쾌히 협조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여건에서 교육과 연구로 바쁘신데도 여러 사안 때마다 교수회에 의견을 주시고 참여해주신 우리 교수님들을 뵈놓을 수 없습니다. 모든 분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조직을 이끌며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본의 아니게 다른 분의 마음을 상하게 만든 일도 있을 것입니다.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주십시오.

김정운 신임 회장님이 이끄는 차기 교수회도 ‘섬김’, ‘소통’, ‘참여’의 슬로건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믿습니다. 교수님들께서도 계속해서 교수회에 관심과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수님들의 건승과 우리대학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Contents

## 10 Community News

2022년 2학기 교수회 활동

- 교수회 선거
- 교수회 사무국장 감사패 전달
- 교수회 시험기간 간식행사
- 2022학년도 2학기 정년퇴임식 축하 꽃다발, 선물 증정
- 미화원 설선물 지원
- 설맞이 예방 활동
- 동아리 활동 후원

## 12 Contribution

행사·행운·행복 - 2022년 하반기 교수 아우회 후기  
경지수 교수, 과학기술대학 물리학과

가르치면서 더불어 성장한다  
이성규 교수, 외국어대학 몽골학과

나의 40년  
심상신 교수, 사범대학 체육교육학과

신임 심교수의 좌충우돌 단국대 캠퍼스 적응기  
심경보 교수, 경영경제대학 경제학과

함께 성장하는 과정  
유영상 교수, 과학기술대학 식품공학과

홍난파 평전, 울 밑에 선 봉선화야  
김난희 교수, 음악대학 성악과

## 21

신임 및 퇴임교원  
상조활동  
교수회 임원 및 운영위원  
교수회 사무국 연락처  
편집후기 및 기고방법 안내

# 따뜻한 소통과 참여를 꿈꾸며

## -제2기 교수회를 시작하며



김정운 교수  
과학기술대학 물리학과  
제2기 교수회장

안녕하세요?

새로운 봄이 다가옵니다. 저는 우리 대학 교수님들의 교육과 연구 환경을 개선하고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보다 교수님들께서 보여주신 높은 투표율에 감사드리고, 4.36%의 반대표를 주신 분들께는 더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팬데믹의 터널을 헤치고 나오자 미처 예상치 못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선, 비대면으로 익숙하게 처리하던 일들을 대면으로 바꾸는 형식의 절차가 복잡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1학년과 4학년이 학교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 차이가 거의 없는 난감한 상황도 확인됩니다. 이는 우리 대학이 그동안 축적하고 고수해온 어떤 흐름에 혼선을 줄 수 있는 위기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론 도전 정신으로 새로운 장면을 써내려갈 좋은 기회로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회도 이러한 전환기의 극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제2기 교수회는 초대 교수회가 다져놓은 기틀을 바탕으로 더욱 힘차게 뻗어나가려 합니다. 초대 교수회는 대학 본부와의 소통 체계화에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제2기 교수회는 이러한 체계화된 시스템을 견고히 유지하며 구성원 한분 한분의 사소한 불편과 권익까지도 꼼꼼히 살피는 일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의 팬데믹과 학력 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이 당면한 어려운 상황을 소통과 참여로 벗어나고자 합니다. 이에 교수회에서는 활력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그동안 중단되거나 축소된 행사를 가급적 많이 가질 계획입니다. 또한 선거 공약을 실천하여 교수님들의 연구와 교육 매진에 도움이 되고 대학 당국과도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초대 교수회 조한승 회장님과 운영진 여러분께 지난 2년 동안 '섬김, 소통, 참여'를 실천하고자 애쓰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장님과 총장님 그리고 부총장님과 실처장님께서 초대 교수회의 의견에 귀기울여 주시고 응답해주신 것처럼 제2기 교수회와도 성장과 발전의 길을 함께 하기를 희망합니다. 새 학기, 교수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빌겠습니다.

## 2021-2022학년도

# 교수회-대학 간 정기 복지협의체 결산



이기광 교수  
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  
교수회 총괄 사무국장

2년 전 교수협의체로부터 새롭게 출범하게 된 교수회는 대학본부와 교수회 사이의 원만하고 체계화된 소통 채널을 정례화하고자 교수회-대학 간 정기 복지협의체를 대학본부의 관심과 협조하에 지난해 11월 29일 제4차 모임까지 매 학기 꾸준히 개최해 왔습니다. 지난 2년간 대학본부가 교수회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준 덕분에 제4차 모임은 본부 보직자와 교수회 임원이 함께 식사하면서 훈훈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복지협의체 모임과 별도로 지난번 교원인사 연구업적요건 기준 개정과 관련해서 대학본부와 논의 중에 대두되었던 우리대학의 연구지원체계의 개선방향에 관해 산학부총장, 산학협력단, 미래융합연구원 등과 협의했습니다. 그 결과 대학연구비 예산 증액이 이루어져 올해부터 신입교수 재임용시 교내연구비 추가지급, BRA(Best Research Award) 신설, 연구점수 150점 미만 대상자에게도 최저 10만원 이상 지급 등 연구장려금 개선 계획을 미래융합연구원으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또한 교수회 요청으로 지난 학기부터 연구과제 책임자 국외여비규정 현실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향후 국내여비규정의 추가 개선과 과제 예산처리 절차 간소화에 대해서도 본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관련 부서의 노고에 감사하며, 차기 교수회에 체크사항으로 인계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교수회의 중점사업 중 하나로 처음 시작하게 된 교수회-대학 간 정기 복지협의체는 상호 이해와 배려 속에 우리대학의 대표적 소통체계로 자리를 잡았다고 평가합니다. 그동안 정기 복지협의체를 안착시키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해주신 모든 교수님과 대학본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논의되었던 사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 ※ 해결된 (처리중) 사안

- ▶방학 중 교원 해외여행 기간 30일 제한 폐지
- ▶노후 냉난방시설 교체
- ▶외부과제 연구책임자의 해외출장시 항공운임 2등석 사용 인정
- ▶대학연구비 예산 증액
- ▶인문사회·예체능 계열의 연구장려금 체제 단일화 (개별과제 폐지)
- ▶교원인사 연구업적기준개정안 교수회 의견 반영
- ▶외부과제 연구책임자의 국내 여비규정 현실화 (현재 개선방안 검토 중)

### ※ 추가논의가 필요한 사안

-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폐지에 따른 예산절감액에 상응하는 대학 학자금 지원 증액
- ▶인문사회계열 학술서 외 전공교재, 전문번역의 저서 실적 인정 (중앙일보평가 저서인정기준 적용)
- ▶외부과제수주 연구실적의 연구장려금 100% 인정 (현재 50%만 인정)
- ▶국제저널 온라인 발행일자 기준으로 연구실적 인정 (대다수 대학들 도입)

적어놓고 보니 안건의 숫자는 많지 않아 보이지만, 소통과정을 통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된 사안의 질적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추가논의가 필요한 사항도 차기 교수회와 본부가 소통을 이어나간다면 더 나은 해결책이 제시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특히 학자금 지원 증액은 기존 예산 내에서 우리 교수님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복지증진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 상황을 고려해가며 장기적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중국 전국시대에 진(秦)나라의 동진을 막아내는 첨병 역할을 했던 위(魏)나라의 기를 마련한 위문후는 “서쪽으로 진(秦)을 누르고 동쪽으로 한(韓)·조(趙)와 연합한다”는 생존전략을 일관되고 독심있게 실행했습니다. 이를 가능케 만들기 위해 “국가는 백성을 이끄는 것보다 지지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철학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이런 역사로부터 오늘날 우리의 대학본부와 교수회가 함께 지향해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대학의 어려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앞으로 더 심해질 것입니다. 생존이 위협받는 시기에 적합한 전략적인 목표는 “최고의 대학” 운운하는 번지르르한 입발림이 아니라 실현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구성원의 지지를 받아 “지속가능한 대학”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전략적 목표를 지혜롭게 설정하는 대학본부와 그러한 목표를 구현할 수 있도록 구성원의 지지를 끌어내는 첨병으로서의 교수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첫걸음을 내디딘 복지협의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를 잘 정착시켜 우리대학을 넘어 한국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대학행정의 전범(典範)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2022학년도 임금협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대내외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기본급은 동결이 되었지만 가정행복수당(5월 1회 지급) 20만원 증액 및 명절수당(1월, 9월 2회 지급) 각 5만원 인상, 그리고 후생복지 차원에서 교내 치과병원 스케일링 무료 실시가 결정되었습니다. 단 체교섭에서 긍정적인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해 주신 대학본부와 직원노조에 고마움을 표합니다.

\* BRA와 국내여비규정 개선 등은 2023학년도부터 바로 실시 예정이니 교원연수자료와 2022학년도 제6차 규정 개정 내용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2학기 교수회 활동

## 2022학년도 제2차 통합운영위원회의



사진 : 조한승회장, 박영준 부회장, 이기광 사무국장, 임은주 지회사무국장, 강동승 감사, 김정윤 감사, 박명선 여교협 회장 외 운영위원

9월29일 2022학년도 제2차 통합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022학년도 2학기 행사를 정리하고, 선거일정 및 진행방식, 감사일정 등을 협의했습니다.

## 2022학년도 2학기 복지협의체 회의



사진: (오른쪽 앞부터) 교수회 이기광 총괄사무국장, 박영준 축전부회장, 조한승 회장, 정치영 천안 부회장 (왼쪽 앞부터) 본부 조찬홍 교무팀장, 강경원 교무처장, 장세원 교학부총장 유정석 기획실장

2022년 11월29일 2022학년도 제2차 복지협의체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에 논의된 다양한 사안을 정리하고 향후 교수회와 대학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논의된 자세한 사항은 Strategy Session을 참조하세요.

## 생애 첫 보직자 명패 전달



사진: 왼쪽부터 조한승 회장, 남재걸 미디어콘텐츠홍보처장

교수회에서는 2022년 9월 13일 남재걸 미디어콘텐츠홍보처장님께 명패를 전달했습니다.

## 교수회 연말 선물 증정

교수회에서는 12월 20일 코르크 마개를 쉽게 딸 수 있는 "전동식 와인 오프너"를 연말 선물로 증정했습니다. 이제 편안히 와인을 즐기세요.



사진: 전동식 와인 오프너

## 신임교원 선물 증정

2022년 8월 31일, 교수회에서는 2022학년도 2학기 신임 교원을 대상으로 고급 벽시계를 선물로 전달했습니다.



## 교수 야유회 및 신입교원 환영식



2022년 10월 22일에는 "교수 야유회 및 신입교원 환영식"이 너리굴 문화 마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총장님을 비롯하여 신입교원과 가족들이 참여한 이번 야유회에서는 비누만들기, 향초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과 푸짐한 경품행사가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사후기를 참조하세요.



사진: 비누만들기 체험



사진: 향초만들기 체험



사진: 김수복 총장님과 신입교원 기념촬영

## 여교협-교수회 공동주최 특강



주최: 여교수협의회

# 가을 팽나무아래 智華者

<세상에서 하나뿐인 나만의 가방 만들기>

**2022년 11월 10일 오후 5시반**  
**대학원동 507호**

교수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선착순 30명 (11월 4일까지 본 예일의 답장으로 사진등록바랍니다.)  
문의: 여교협 사무국 | 031-8005-375(국전)

2022년 11월 10일에는 여교협(회장: 박명선 교수)과 교수회가 공동주최하는 특강, "가을 팽나무아래 지화자 - 세상에서 하나뿐인 나만의 가방 만들기" 행사가 있었습니다. 예술대학 조희경 교수님의 지도 아래 50여명의 교수가 대학원동 강의실에 모여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 교수회 선거



사진 : 왼쪽 사진 - 김정운 2대 회장 당선인과 박영준 공동선거위원장; 오른쪽 위 사진 - 왼쪽부터 신임 임수경 죽전 감사와 박영준 공동선거위원장; 오른쪽 아래 사진 - 왼쪽부터 박성만 공동선거위원장, 신임 오세행 천안 감사, 김정운 회장 당선인

2022년 12월 12일 부터 2022년 12월 19일까지 제2대 교수회 회장 및 감사 선거가 있었습니다. 회장 선거에서 김정운 후보가 당선되었고, 감사 선거에서 죽전캠퍼스 임수경 후보와 천안캠퍼스 오세행 후보가 각각 당선되었습니다. 투표율 69.32%로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여 의사를 표현해주신 모든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교수회 사무국장 감사패 전달 및 신규임원진 인사 및 인수인계



사진 : 왼쪽 사진 - 조한승 회장, 이기광 총괄사무국장, 오른쪽 사진 - 교수회 신규임원진

2023년 2월 23일 이기광 교수회 총괄사무국장님께 초대 교수회를 이끄신 노고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이날 신규임원진 간 상견례와 인수인계도 이뤄졌습니다.

## 교수회 시험기간 간식행사



사진 : (왼쪽 부터) 중간고사 간식행사 천안, 죽전, 기말고사 간식행사 죽전, 천안

대면수업이 활성화되면서 시험기간 간식행사에 학생들의 참여가 더 많았습니다. 2022년 10월 17일 천안캠퍼스와 10월 18일 죽전캠퍼스에서 중간고사 간식행사가 있었고, 12월 12일 천안캠퍼스와 12월 12일 죽전캠퍼스에서 기말고사 간식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 2022학년도 2학기 정년퇴임식 축하 꽃다발, 선물 증정



사진 : (왼쪽 첫번째) 조한승 교수회 회장, (중앙 오른쪽) 김수복 총장님과 2022학년도 2학기 정년퇴임식 참석자들

2023년 2월 24일 개최된 2022학년도 2학기 교직원 정년퇴임식을 맞이하여 교수회는 축하의 의미를 담은 꽃다발과 선물을 증정했습니다.

## 미화원 설선물 지원

교수회는 2023년 1월 10일은 천안캠퍼스, 1월 13일은 죽전캠퍼스에서 미화원 분들에게 평소 도움에 대한 교수회의 감사의 마음을 담은 작은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사진: (왼쪽) 천안캠퍼스 전달식 (오른쪽) 죽전캠퍼스 전달식

## 설 맞이 예방활동

교수회에서는 설을 맞이하여 2023년 1월 16일 명예 이사장님과 총장님을 예방하였습니다. 2023년 1월 20일에는 이사장님을 예방하였습니다.

## 동아리 활동 후원

교수회에서는 단국대학교 추계 교직원 테니스 대회를 지원했습니다.



## 행사 · 행운 · 행복 - 2022년 하반기 교수 야유회 후기

### 행사



경지수 교수  
과학기술대학 물리학과



사진: 안성 너리굴 주차장에서 건너편 산을 바라본 모습  
- 날씨도 좋고 전망도 좋고 기분도 좋고

드디어 2022년 10월 22일 토요일 아침이 밝았다. 2020년 3월에 단국대학교로 이직을 한 이후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등반대회 비롯하여 많은 행사들이 모두 취소되는 바람에 아쉬움이 크던 터라 무엇보다 이번 야유회에 대한 기대가 컸다. 10시 30분 행사 시작이라 새벽부터 애들을 깨워서 준비시킨 후 안성 너구리 아니아니 너리굴로 출발! 평소에 유치원 갈 때는 깨워도 깨워도 안 일어나던 녀석들이 비누 만들러 가자니까 어찌나 적극적으로 나서던지. 다행히 날씨도 좋고 아침 일찍부터 서두른 덕분에 길도 안 밀리고 제시간에 잘 도착하였다. 너리굴은 처음 가보는데 올라가는 길이 다소 외진 탓에 이 길이 맞나 싶을 때쯤 갑자기 탁 트인 주차장이 나타났다. 이야 전망이 진짜 예술이네!

도착해서 교수회에서 준비한 기념품과 이름표를 받고 반가운 교수님들께 인사 드리다 보니 어느새 행사가 시작되었다. 김수복 총장님과 조한승 교수회 회장님의 인사말에 이어 기념 촬영을 마친 후 산책, 향초, 비누 만들기 조별 행사가 진행되었다. 개인적으로 비누 만들기를 좋아해서 온 가족 모두 비누 만들기를 신청하였다.



사진: 두근두근 비누 만들기

## 행운

신나는 비누 만들기를 마치고 드디어 점심 시간. 비누 체험장에서 조금 걸어 올라가니 전망 좋은 식당이 나왔다. 메뉴는 초벌 구이가 된 삼겹살과 목살이었고 다양한 주류와 음료가 있었다. 운전을 해야 해서 아쉽게도 주류는 패스.

한참 식사를 하다 보니 어느덧 경품 추첨 시간이 다가왔다. 주최측에서 핸드크림, 치약, 안마기 등 다양한 상품을 준비하였는데 1등 상품은 무려 아이팟이었다. 경품 추첨은 이름표에 있던 번호를 통 속에 넣고 하나씩 뽑는 식으로 진행되었고, 경품이 넉넉했기 때문에 참가자 전원에게 상품이 돌아갔다. 경품 당첨된 사람이 자기 소개를 하고 다음 경품 당첨자를 뽑는 방식이라 더욱 흥미가 있었다.

원래 아내는 경품 당첨 운이 좋은 편이라 어디 가면 꼭 중간 이상의 선물을 받아오곤 했다. 반면에 나는 로또를 사도 번호 한 개를 맞추지 못할 정도로 당첨과는 인연이 멀었다. 근데 어쩐 일인지 이번 경품에서는 아내가 치약에 내가 핸드크림에 당첨되었다. 치약도 물론 좋은 상품이지만 핸드크림이 더 윗급이었기에 아내에게 은근히 으스스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참가자 전원에게 상품이 돌아갔지만, 상품에 비해 참가자가 적어서 다시 한번 뽑았던 번호를 모두 넣고 2차 경품 추첨에 들어갔다. 어차피 1등 상품은 안될거라 생각하고 뭐라도 하나 더 받기를 희망했지만, 끝날 때까지 내 번호는 다시 불리지 않았다.

그렇게 2차 경품 추첨도 끝나가며 이제 마지막 대망의 아이팟 추첨만이 남았다. 그리고 두구두구 번호가 불리었는데 헉 친숙한 번호가 아닌가! 바로 내 앞에 앉아있던 아내의 번호였다! 될 사람은 된다더니 평소에 경품 운이 좋았던 아내가 이번에도 무려 아이팟에 당첨이 된 것이다. 핸드크림으로 자랑하던 내가 한순간에 머쓱해지는 순간이었다. 역시 사람은 항상 겸손해야 하고 야구나 인생이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교훈을 다시한번 되새기는 순간이었다.

## 행복

오랜만에 자연에서 뛰어놀다 보니 아이들도 무척 신이 났는지 모든 행사가 끝나고도 한참을 너리굴에서 놀았다. 덤지도 흠지도 않은 딱 좋은 날씨라서 더 좋았던 것 같다. 사실 원래 같은 날 점심 때 가족 행사가 잡혀 있었는데 교수회 야유회가 있어서 저녁으로 모임을 미룬 터였다. 주말 오후라 길도 밀릴 것이 분명해 서둘러 가자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좀처럼 집에 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마 일정이 겹치지 않았다면 저녁 때까지 놀다 집에 갔을 것이다. 그렇게 몇 시간 더 논 덕분에 출발이 늦어져 가는 길이 엄청 밀렸지만, 야유회에서 보낸 즐거운 시간을 되새기며 이야기 꽃을 피우다 보니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

처음 야유회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모르는 교수님들도 많고 해서 어색하지 않을까 걱정도 했지만, 막상 참여해보니 소풍 나온 기분도 들고 기분전환도 되고 무척 행복한 시간이었다. 벌써부터 다음 야유회가 기다려진다. 끝으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게 해 주신 교수회에 감사드리며 만일 야유회 참여를 망설이고 있는 신임 교수님이 계시다면 분명 행복한 시간이 될 테니 꼭 참여하시라고 강력 추천하고 싶다.



사진: (왼쪽) 1등 경품을 손에 들고, (오른쪽) 거대 그물망 그네 타기

# 가르치면서 더불어 성장한다



이성규 교수  
외국어대학 몽골학과

대학교의 교수란 직업은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좋은 직업이다. 정해진 수업과 논문을 작성하고 학생들과 잘 어울리면 잡릴 염려가 없고, 수업 시간 이외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할 수가 있다. 게다가 급여도 다른 직종보다는 적은 편이 아니고 여름과 겨울에는 2개월 가까이 방학도 있으며, 퇴임 이후에는 연금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믿는 바를 실천할 수가 있다.

베이비붐 세대인 필자는 좋은 부모님 아래서 성장하였기에 동년배의 5%만 대학에 입학하는 특전을 누렸다. 학부에서 훌륭한 은사님들(황패강, 남풍현, 윤홍로, 전광현)로부터 학문하는 즐거움과 방법을 이어받았고 고등학교와 연구소에 근무하는 동안에는 선배들로부터 여러 가지 삶의 지혜를 배웠다.

대학의 교수는 가르치는 것과 연구를 같이 해야 한다. 학생들의 취업에도 신경을 써야 하지만 교수의 기본 임무는 교수(敎授), 즉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런데 가르쳐 주려면 아는 것이 있어야 가르쳐 줄 수가 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알면 좋지만, 최소한 자신의 전공만이라도 해박해야 한다. 다행히 필자는 은사님들과 선배들로부터 많은 것을 물려받았기에 비교적 수월하게 학생들에게 강의를 할 수가 있었다.

급속도로 변하는 세상의 흐름에 따라 새롭게 생겨나는 지식은 본인들이 새롭게 개척해야 한다. 특히 필자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몽골학>을 전공하였기에 모든 면에서 개척해야만 했었다. 그러나 개척하는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음식을 구할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단식을 했고, 추위에 떨며 죽을 고비도 여러 번 겪었다. 그러나 어려움 뒤에 다가오는 즐거움은 모든 것을 잊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느낀 점은 누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말라>는 것이다. 물론 이 부탁은 올바른 것이어야 한다.

한 예로 대형 연구사업의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는데 연구책임자가 갑자기 변경이 발생하여 연구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부득이 이 사업의 책임자를 맡게 되었는데 우연이 맡게 된 이 연구 과제에서 많은 수확을 거두었다. 또 이 사업으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과 만나게 되었고 이것이 후속 사업의 토대가 되어 10년 동안 연구비를 수주할 수 있었다. 부탁을 들어주어야 할 때는 성가시고 불편하겠지만 남에게 덕을 쌓는 것으로 생각하고 제 일처럼 성실히 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행복으로 돌아온다.

교수가 연구비를 수주하게 되면 많은 이득이 있다. 우선 대학원생이 생겨 연구하기가 수월해지고 연구업적에서도 해방이 되어 승진과 승급의 스트레스도 사라진다. 또 연구비가 있으니 자신이 보고 싶은 책을 살 수도 있고 가보고 싶은 곳을 갈 수도 있다. 부인으로부터 경제적으로 해방되는 것은 물론이고 인센티브를 아껴 두면 퇴임 이후에도 주변 사람의 눈치를 안 봐도 된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연구비를 수주하여 연구를 진행할수록 연구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며 다른 연구자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다. 또 다음 단계로 연구할 주제가 폭넓게 보이며 다른 연구자들에게 주제를 나누어 줄 수도 있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알려줄 것들이 많게 되어 학생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교수 생활의 핵심은 연구비이므로 연구비를 수주하여 선순환구조를 이루어야 한다.



과거에는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고 하였다. 지금은 스승은 없고 교수만 있는 세상이 되었지만 그래도 교수는 스승의 길로 가야만 한다. 많이 알아도 말로만 외치고 정작 본인이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스승의 길이 아니다. 스승의 길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강의 준비는 하지 않고 골프만 치러 다니면 누가 교수의 말을 따르겠는가. 연구실에 상담하러 갔더니 교수가 자리가 없으면 학생이 얼마나 실망하겠는가, 회사에서 일자리가 나서 연구실에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떻게 학생을 취업시키겠는가.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저녁 시간에 교수 연구실에 불이 꺼 있는 연구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마저도 점점 줄어들어 안타깝기 짝이 없다.

오래전에 몽골에서 은사 선생님이 오셔서 필자와 연구실에서 몇 년을 같이 보낸 적이 있었다. 그때 필자는 교수 초년병이어서 연구와 강의의 어려움을 은사에게 토로한 적이 있었다. 수업을 준비하고 학생은 지도하다 보면 연구할 틈이 좀처럼 나지 않았다. 논문을 방학 기간에 집중적으로 쓰면 되지만 학기 중에는 쉽지 않았다. 그때 은사님은 빙그레 웃으며 <배우면서 연구하라>고 하셨다.

교학상장(敎學相長), <가르치고 배우면서 더불어 성장한다>란 말이다. 예기(禮記) 학기(學記) 편의 이 구절이 새삼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처음부터 많은 것을 알고 교수 생활을 시작하면 좋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다. 해가 지나면 지식은 쌓이는 것이니 처음부터 알지 못한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 모자라는 것은 배우며 쌓아나가면 된다.

실력을 쌓는 쉬운 방법으로 주변의 전공이 다른 교수님과 교류를 권하고 싶다. 인문학을 전공한 필자는 자연 계열의 교수님들과 교류를 통해서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유전학, 고고학, 한의학, 전산학 전공 교수님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수월하게 해결할 수가 있었다. 또 인문학 교수들의 선망의 대상인 국제학술지에 이름을 올리는 부차적인 혜택도 누릴 수가 있었다.

간혹 제자 중에 뛰어난 학생들이 있다. 하나를 가르쳐서 열을 알면 좋지만, 처음부터 아름다운 보석은 존재하지 않는다. 절차탁마(切磋琢磨)라고 하지 않았던가. 열심히 가르치고 환경을 만들어주면 나보다 더 나은 제자들이 많이 나오게 마련이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즐거움이다.

30년간 교수 생활 중 기쁜 일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교수로서 가장 즐거운 일은 제자들이 잘 되는 것이다. 짧은 실력으로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했는데 멋들어지게 성장하여 인사차 왔을 때는 교수로서의 참된 보람을 느꼈다. 고려 말기에 충선왕(忠宣王)이 원나라의 수도인 대도(大都: 북경)에 만권당(萬卷堂)을 세우고 학문교류의 장을 열었던 마음으로 이제 그동안 힘들게 수집하였던 전공 서적들을 제자들에게 물려주는 것으로 스승으로서의 마지막 임무를 다하고자 한다.

## 나의 40년



심상신 교수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1982년 9월 1일 교수가 되고자 하는 나의 꿈을 실현하고자 조교로서 첫발을 내디딘다. 1985년 3월부터 1988년 8월까지의 연구원 생활을 마치고, 그해 9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의 교수 생활, 참 오랜 시간을 단국대학교와 함께해 왔다.

30대 젊은 시절을 천안 캠퍼스에서 보내고, 40대를 한남동 캠퍼스에서, 50대를 지나 정년퇴직을 죽전캠퍼스에서 보내고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니 참 열심히 살았다. 학생들과의 추억, 동료 교직원과의 추억. 대학의 발전 과정. 교수 역할의 변화 등 수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간다. 이제 정년을 맞이하여 그동안의 교수 생활을 회고하고 반성하며 후배 교수들에게 남길 이야기가 무엇이 있을까?

후배 교수들은 과거보다 매우 힘든 교수 생활을 하는 것 같다. 강의와 연구 활동, 학회 활동, 학생 지도 등 그런 가운데도 열심히 하는 너무 훌륭한 교수들이 많다. 하지만 선배 교수들도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 나가며, 오늘의 단국대와 함께한 장점도 있다. 새로운 것만을 우선 하는 것보다 이전의 좋은 점을 계승하여 더욱 좋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지내고 보니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동료 교수와의 관계인 것 같다. 가족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동료 교수, 나의 경우 지난 세월 중 행복한 교수 생활의 중요한 변수라 생각한다. 학교에서의 각종 보직은 학생 및 학과와 멀어지고, 연구 활동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오래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아무리 잘해도 지나고 나면 잊힌다.

1976년 3월 단국대학교 신입생 입학식에서 현재 명예이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른다. 일류대학은 없어도 일류대학생은 될 수 있다. 우리 대학은 일류대학인가? 하지만 교수님들의 사랑을 동반한 가르침에 의해 우리 학생들을 일류대학생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80년대의 자유화 물결, 90년대 발전과정 중 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급여 없는 교수 생활, 2000년대 들어서의 피나는 노력으로 2007년 죽전캠퍼스 이전과 정상화, 이 모든 과정이 지나간 일들이 되었다. 보직 생활 중 보람된 시간도 있었다. 학생처장 시절 개학을 앞두고 발생한 신종 플루 모두 합심하여 잘 이겨냈다. 박태환 금메달 응원,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벅차다. 사범대학장 시절, 많은 교수님과 대화의 시간이 부족해 아쉽다.

노력의 결실로 얻은 사범대학 평가 결과와 임용고사 합격률의 점진적 증가 등 모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대학원 교수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인사드립니다. 교수님들의 노력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동안 함께했던 행정직 선생님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나의 삶의 절반을 보낸 단국대학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행복했습니다.

단국대학교의 발전과 교수회를 응원하며, 교수님들의 행복한 교수 생활을 기원하겠습니다.





# 신임 심교수의 좌충우돌 단국대 캠퍼스 적응기



심경보 교수  
경영경제대학 경제학과

단국대 선배 교수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2년 9월부터 경제학과에서 지내게 된 심경보입니다. 2017년 미시간 주립대에서 학위를 마쳤고, 그 후 세종시에 있는 KDI에서 5년 정도 근무하다가 단국대로 오게 되었습니다.

첫 출근날 캠퍼스 정문에서부터 상경관 연구실까지 걸어가며 느꼈던 설렘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싱그럽고 꿈 많아 보이는 학생들을 마주하면서 우뚝 솟은 상징탑을 거치고, 부임 첫날부터 늦가을을 기대하게 했던 은행나무, 단풍나무 길을 걸어 연구실 문 앞에 섰을 때 제 가슴에서 쿵광대는 소리는 꽤 오래도록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학기가 지나면서 점점 더 커졌던 감정은 설렘보다는 부담감이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해서도 그러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연구자이자 교육자로서 1인분을 해내야 한다는 부담을 크게 느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KDI에서 주로 국가의 비전과 정책적인 고민을 담아내는 연구에 몰두했다면, 이제는 조금은 더 학술적인 연구의 비중을 더 높이는 쪽으로 새로이 적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학과장 교수님께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척 말씀드리긴 했지만, 연구 실적을 채워야 하는 압박도 생각보다 크게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에 해보는 강의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댄에는 학생들과 열심히 소통하고자 했지만, 아직은 강의내용을 충실히 전달하는데 급급한 제 모습이 답답했습니다.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 제 자신감이 더 떨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나마 눈으로 웃음짓는 몇몇 학생들마저도 입꼬리는 내려가 있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장 이사할 수 없기에 매일 세종에서 출퇴근해야 하는 상황도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이렇게 좌충우돌하며 한 학기 적응하는 동안 많이 힘들기도 했지만, 감사하게도 저를 도와주신 손길이 많아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경제학과 선배 교수님들은 학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조언도 해주시고 맛있는 밥과 커피를 수없이 사주셨습니다. 상경관에 계신 다른 과 선배 교수님들도 오가며 마주칠 때마다 반갑게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교수회에서는 신임교수 환영회를 통해 좋은 경치를 보여주시고 선물도 한가득 안겨주셨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는 매일 일찍 집을 나와 늦게 집에 들어가야만 했던 저를 이해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삶의 여정에서 캄캄하게 느껴졌던 순간마다 저를 도와준 손길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문득 떠오릅니다. 학부, 대학원을 거치는 동안 때론 직접적인 격려로, 또 때론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제게 소중한 가르침을 주셨던 선생님들, KDI에서 더 진중한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었던 동료, 선배 박사님들, 언제나 제 곁을 지켜준 부모님, 아내, 아이들.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지금까지 1인분을 감당해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떠올리니 제 부담감이 조금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부담감보다는 첫 출근길의 설렘을 가슴에 품고 겸손하게 하루하루 열심히 연구하고, 제가 깨우친 것들을 학생들과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누군가의 어려운 시기에 미약한 빛을 보태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상징탑을 거치고, 은행나무, 단풍나무 길을 걸어 연구실 문 앞에 서게 되는 날 충만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함께 성장하는 과정

안녕하세요. 2022년 2학기 단국대학교 과학기술대학 식품공학과에 신입 교원으로 부임한 유영상입니다. 부임 후 교수님들께 직접 인사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지면으로도 교수님들께 인사드릴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교수회 회장님께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여러 방면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훌륭한 교수님들과 같은 소속이라는 것에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교수님들의 업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저 또한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학위과정 중 바이오센서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바이오센서는 이미 우리 생활 속에 널리 이용되는 진단 방법입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혈액을 이용한 당 진단기, 임신 테스트 키트(kit), 그리고 코로나 자가 진단 kit 등이 있습니다. 저는 특히 식품과 관련한 물질을 검출하는 바이오센서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여기서 식품 관련한 물질이란 식품 속 기능성 물질(단백질 등)이나 위해 물질(중금속, 유해균, 바이러스 등)을 이야기합니다. 불과 3년 전 우리에게 COVID-19로 인한 팬데믹(pandemic)은 상상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위기는 경고 없이 닥치듯 우리의 지난 2년은 학계를 떠나 사회 전반적 위기로 전해졌습니다. 결국엔 많은 사람이 위기에 그대로 노출되어 현재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가 혹은 개인적 차원에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난 2년간 충분히 느꼈는데요. 이런 위기는 어떤 형태로든 미래의 우리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조에 인류의 생존에 필수인 식품의 안전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기 대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만한 식품 보안(Food Security)에 관련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식품을 구매, 소비하는 일반인 혹은 식품을 제조, 유통하는 산업계에서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식품 바이오센서 kit에 관해 연구하여 앞으로의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바이오센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연구 분야의 교수님들과 협업할 수 있는 연구가 있다면 약소하나마 힘을 보탬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학기 단국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보내면서 열정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열정이 있는 대학생들과 함께 한 학기를 보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열정을 좋은 방향,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교육자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단계를 거쳐오면서 겪었던 시행착오 혹은 노하우가 학생들의 열정에 더해지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을 개별로 만나면서 학생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들려주어 산업계 혹은 학계에 필요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마음을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교육자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학기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모르는 것에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중요한 건 결국에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저 또한 ‘오늘’ 가지고 있는 능력치는 ‘내일’의 능력치보다 낮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교육자, 연구자가 되겠습니다. 이제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성장하는 학생들과 더불어 저도 같이 성장하여 단국대학교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상 교수  
과학기술대학  
식품공학과



# 홍난파 평전, 울 밑에 선 봉선화야



김난희 교수  
음악대학 성악과

"울 밑에선 봉선화야 네 모양이 처량하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홍난파 작곡 [봉선화]와 [고향의 봄]의 첫 구절이다. 한국 최초의 바이올린 연주가이며 뛰어난 저널리스트였던 [봉선화][고향의 봄][반달]등을 작곡한 난파의 본명은 홍영후.. 한국인이란 홍난파라는 이름과 이 노래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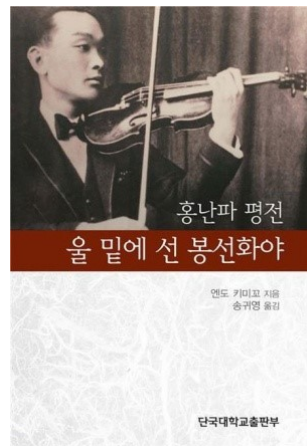
죽전 정문을 지나자마자 정면에 보이는 언덕을 힘내어 끝까지 올라오면 웅장한 느낌의 건물들이 눈길을 멈추게 한다. 역사관과 그 옆에 위치한 난파 콘서트홀 그리고 난파 음악관.. 그런데 단국대학교 내에 있는 음악관 이름이 왜 난파 음악관..일까?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도 하지만, 1982년 한남동 캠퍼스 시절에 음악관을 기공하며 우리나라 근대 음악의 선구자이신 난파 선생의 호를 따 난파 기념음악관이라 지었는데, 마침 그때 난파 선생의 미망인이신 이대형여사께서 우리 학교에 유품을 기증해 주셨다고 한다. 죽전 캠퍼스 음악관을 들어서면 바로 왼쪽에 난파 홍영후 전시실이 자리하고 있는데, 난파가 사용했던 바이올린, 문화재로 등록된 자필 악보, 문학 창작집, 문화훈장 등 그의 삶과 음악을 온전히 느끼며 볼 수 있다

1898년 경기도 화성에서 태어난 그는 일제강점기라는 큰 시련의 상황에서 일본과 미국에서 유학을 한 이후 많은 일들로 친일파 논란으로 지금까지 자유롭지 못하나, 순수한 음악가로서의 삶과 작품, 한국에 서양 음악이 발전하는데 초석을 다지신 분이라는 것은 분명 사실이다. 비극적인 역사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그의 천부적인 재능과 작품들.. 그리고 앞에서 일부 언급했듯이 최초의 바이올리니스트, 최초의 음악평론가, 최초의 교향악단 지휘자, 최초의 음악전문지를 발간한 발행인..등 1941년 병으로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기까지 수 많은 분야를 개척한 분이다

저자인 엔도 키미코여사는 1927년생으로 후쿠오카여자대학 가정과 졸업, 쿠니타찌 음악대학 성악과를 졸업 후 모리오카대학 문학부 교수, 세이가쿠인대학 인문학부 교수를 역임하였다. 1999년 4월 우연히 일본 NHK방송 명곡앨범에 소개된 난파 선생의 봉선화를 들은 후 작곡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어, 한국인 홍난파를 일본인 여성 성악가이자 교수인 그녀가 우리나라를 몇 번씩 방문하여 자료를 찾아 헤매고, 일본에서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모든 도서관들을 뒤져 난파의 흔적을 찾고, 역사를 바로 잡을만한 자료들을 찾아내기도 하였다. 그 수년에 걸쳐 힘들게 수집한 자료의 결과물이 바로 이 평전이라고 사려된다.

2017년 우리나라를 방문하였을 당시 필자도 잠깐이었지만 뵈는 적이 있는데, 오로지 천재 작곡가 홍난파에 대한 존경심과 안타까움만이 가득함을 너무나 느낄 수 있었다, 어떠한 이유를 떠나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할 수 밖에 없었다.



「울 밑에 선 봉선화야 - 홍난파 평전」  
저자 : 엔도 키미코, 번역 : 송귀영  
출판 : 단국대학교출판부 (2017)

# 신임 및 퇴임교원

교수회에서는 신임교원에게는 축전과 선물, 퇴임교원에게는 꽃다발과 상품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2022학년도 2학기 퇴직자

오재인 (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  
 신상신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나경환 (공과대학)  
 오승록 (공과대학 전자전기공학부)  
 윤용수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이계성 (SW융합대학 소프트웨어학과)  
 우진운 (SW융합대학 소프트웨어학과)  
 윤명원 (음악·예술대학 음악학부)  
 이상덕 (과학기술대학 수학과)  
 김유희 (과학기술대학 화학과)  
 임흥빈 (과학기술대학 화학과)  
 이기호 (과학기술대학 물리학과)  
 이성규 (외국어대학 아시아중동학부)  
 안희진 (외국어대학 아시아중동학부)  
 장영표 (의과대학 의학과)  
 이경규 (의과대학 의학과)  
 이종현 (치과대학 치의예과)

## 2023학년도 1학기 신임교원

조승진 (경영경제대학 경제학과)  
 김한솔 (공과대학 전자전기공학부)  
 홍웅기 (공과대학 전자전기공학부)  
 김세영 (공과대학 고분자시스템공학부)  
 백지은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김명선 (음악·예술대학 도예과)  
 신윤수 (음악·예술대학 음악학부)  
 김세윤 (대학원 e스포츠학과)  
 오아미 (문화예술대학원)  
 김 언 (문화예술대학원)  
 김병진 (일본연구소)  
 조규연 (외국어대학 유럽중남미학부)  
 김한철 (외국어대학 유럽중남미학부)  
 원종호 (과학기술대학 에너지공학과)  
 조익현 (생명공학대학 생명자원학부)  
 차해지 (생명공학대학 의생명공학부)  
 김길환 (의과대학 의학과)

구청모 (의과대학 의학과)  
 전홍배 (의과대학 의학과)  
 최정준 (공공·보건과학대학 해병대군사학과)  
 황지은 (공공·보건과학대학 보건행정학과)  
 박지환 (자유교양대학)  
 임희주 (자유교양대학)

# 상조활동

교수회는 교수님들의 경조사에 화환, 축의금, 근조기 설치 및 부의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 부고

류상욱 교수(공과대학) 부친상  
 강창현 교수(공공·보건과학대학) 모친상  
 유지혜 교수(보건복지대학원) 시부상  
 손승희 교수(경영경제대학) 빙부상  
 김대근 교수(공과대학) 부친상  
 고종선 교수(공과대학) 모친상  
 박정원 교수(법과대학) 부친상  
 이준행 교수(치과대학) 부친상  
 이미정 교수(의과대학) 부친상  
 권민혁 교수(사범대학) 자녀상  
 고경호 교수(정책경영대학원) 빙모상  
 한정환 교수(문과대학) 부친상  
 현준원 교수(과학기술대학) 빙모상

유영식 교수(자유교양대학) 모친상  
 임진익 교수(공과대학) 부친상  
 박용성 교수(사회과학대학) 부친상  
 이용원 교수(의과대학) 빙모상  
 전해성 교수(행정법무대학원) 부친상  
 박소영 교수(약학대학) 부친상  
 이상덕 교수(과학기술대학) 빙모상  
 정윤화 교수(과학기술대학) 부친상  
 임상혁 교수(경영경제대학) 빙부상

# 교수회 임원 및 운영 위원

## 교수회 임원

|       |                   |           |                              |            |
|-------|-------------------|-----------|------------------------------|------------|
| 회장    |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조한승 | ☎ 죽전 3318 | ✉ hanscho@dankook.ac.kr      | 사회과학관 408  |
| 부회장   | 법과대학 법학과 박영준      | ☎ 죽전 3279 | ✉ yjpark@dankook.ac.kr       | 법학관 538    |
|       | 예술대학 미술학부 정치영     | ☎ 천안 3721 | ✉ chired@dankook.ac.kr       | 예술관 112    |
| 사무국장  | 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 이기광   | ☎ 죽전 3421 | ✉ kiklee@dankook.ac.kr       | 상경관520     |
| 지회    | 사범대학 과학교육과 임은주    | ☎ 죽전 3217 | ✉ elim@dankook.ac.kr         | ICT관 124   |
| 사무국장  | 자유교양대학 박성만        | ☎ 천안 1398 | ✉ seongmanpark@dankook.ac.kr | 사회과학관 141  |
| 감사    |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강동승    | ☎ 죽전 3830 | ✉ dskang@dankook.ac.kr       | 사범관 607    |
|       | 과학기술대학 물리학과 김정윤   | ☎ 천안 3423 | ✉ jeongyunkim@dankook.ac.kr  | 자연과학2관 809 |
| 여교협회장 |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박명선    | ☎ 죽전 3108 | ✉ mmspark@dankook.ac.kr      | 법학관 513    |

## 교수회 운영위원

죽전캠퍼스 운영위원 (24명)

|                 |                                                                |
|-----------------|----------------------------------------------------------------|
| 문과대학            | 영미인문학과 위혜경<br>국어국문학과 권진옥                                       |
| 음악·예술대학         | 도예과 김병율<br>음악학부 김난희<br>음악학부 이수진                                |
| SW융합대학          | 소프트웨어학과 이상범<br>컴퓨터공학과 박경신                                      |
| 사회과학대학          | 행정학과 남재걸<br>커뮤니케이션학부 전종우                                       |
| 법과대학            | 법학과 정해상<br>법학과 박영준                                             |
| 경영경제대학          | 경영학부 이기광<br>경영학부 전정호<br>경영학부 문보영<br>무역학과 이지수                   |
| 공과대학            | 건축학부 홍경구<br>건축학부 이경구<br>전자전기공학부 장우영                            |
| 일반/특수/전문<br>대학원 | 교육학과 이영희 (1학기)<br>특수교육대학원 정연수 (2학기)<br>교육학과 박명선<br>행정법무대학원 이환수 |
| 자유교양대학          | 유혜원                                                            |
| 사범대학            | 체육교육과 최형준<br>과학교육과 임은주                                         |

천안캠퍼스 운영위원 (24명)

|         |                                        |
|---------|----------------------------------------|
| 외국어대학   | 몽골학과 류병재<br>아시아중등학부 송상현                |
| 보건복지대학  | 심리치료학과 김민선<br>공공정책학과 성시경<br>공공정책학과 임동완 |
| 과학기술대학  | 수학과 심상길<br>물리학과 경지수<br>식품공학과 이형재       |
| 생명공학대학  | 생명자원학부 김현범                             |
| 예술대학    | 미술학부 정치영<br>미술학부 조희경                   |
| 스포츠과학대학 | 스포츠경영학과 이병관                            |
| 간호대학    | 간호학과 김미옥                               |
| 약학대학    | 약학과 강명주                                |
| 자유교양대학  | 조상우<br>박성만                             |
| 의과대학    | 의학과 조경진<br>의학과 강윤단<br>의학과 민준원          |
| 치과대학    | 치의학과 조자원<br>치의학과 신수연<br>치의학과 김종빈       |
| 대학원     | 나노바이오의과학과 이은정<br>나노바이오의과학과 오세행         |

## 교수회 사무국 연락처



죽전 캠퍼스 교수회 사무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상경관 532호 ☎ 031-8005-2894 엄희재 조교  
천안 캠퍼스 교수회 사무실: 충남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119 인문과학관 244호 ☎ 041-550-1553 김현지 조교  
이메일 : prof@dankook.ac.kr 웹사이트: <https://cms.dankook.ac.kr/web/professor>

## 편집집행기 및 기고 방법 안내



이지수 교수  
경영경제대학 무역학과

<교수회 브리프> 제17권 4호는 초대 교수회를 마무리하는 아쉬움과 차기 교수회의 힘찬 도약을 기대하는 설렘으로 만들었습니다. 지면을 통해 다루지는 못했지만 회장 선거를 치뤄내는 교수님들 모습에서 빛났던 합리와 지성, 민주적 가치는 꼭 기억하고 싶습니다.

<교수야유회>, <가을 팽나무 아래 지화자>, <홍난파 평전> 등 이번 호를 빛내주신 교수님들의 소중한 글들로 <교수회 브리프>는 더욱 다채로운 소식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해주시고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수회 브리프>는 교수님들의 참여로 더욱 신선하고 풍부해집니다. 교수님들의 글과 사연, 사진, 맛집소개와 소소한 일상, 무엇이든 함께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다면 교수회 사무국 이메일(prof@dankook.ac.kr)로 보내주세요. <교수회 브리프>에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교수회 슬로건 '섬김, 소통, 참여'를 손 형태로 상징화함. 교수회브리프 17권 4호 발행일 2023년 2월 28일  
발행인-조한승, 인쇄-이기광, 편집-이지수, 제호·로고 디자인-정훈동, 행정-엄희재·김현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상경관 532호 Tel 031-8005-2894 수고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